

손태승 수익성장 통했다... 우리은행 '2조 클럽' 진입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순이익)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192억원 전년 비 33.5% 증가 '사상 최대' ROA 0.62%·ROE 9.62% 기록 부실채권 커버리지비율도 개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손진영기자 son@

손태승 회장이 이끄는 우리은행이 순이익 2조 클럽에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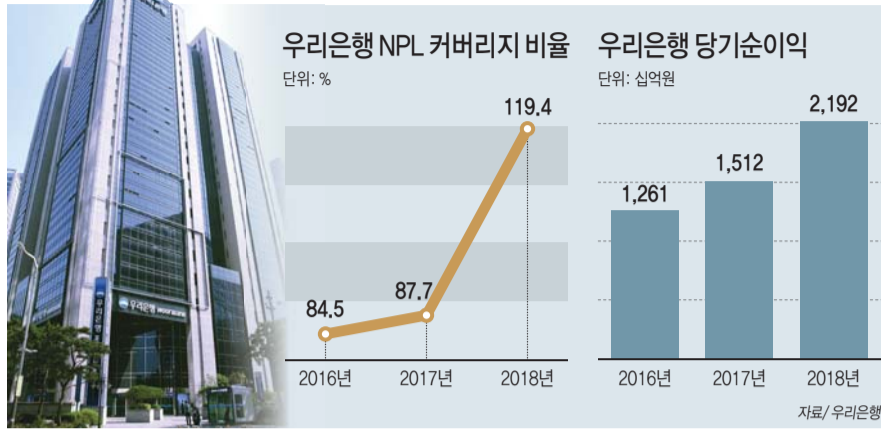
지난해 영업이익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160억원으로 3분기(5980억원)보다 크게 줄어 당초 추계권 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하나금융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의 2조 2402억원을 따라잡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11일 지난해 실적발표를 통해 4분기 순이익 1160억원을 포함해 누적 당기순이익 2조19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3.5% 증가한 수치로, 경상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7439억원으로 사상최대였다.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또한 각각 0.62%와 9.6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증가는 지난해 우리은행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한 결과다. 자산관리·자본시장·글로벌 위주의 수익 확대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실적 향상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자이익은 우량 중소기업 위주의 자산성장 및 핵심 저비용성예금의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중소기업 대출은 6.5% 증가하며 자산성장을 이끌었고, 핵심 저비용성예금도 5.9% 증가하며 향후 수익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비이자이익은 핵심영역인 수수료이익 부문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특히 자산관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신탁 및 수익증권 등의 성과가 두드러지며 수수료 이익이 4.8% 증가했다. 기업투자금융(CIB) 및 파생상품 분야도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며 전체 비이자이익 실적을 견인했다.

글로벌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2000억원 수준의 순이익을 시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우리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4분기 기준 1.51%로 3분기보다 0.02%포인트 하락했지만 누적 기준 순이자마진은 1.52%로 3분기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우량자산 위주의 영업을 지속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정이자여신(NPL) 비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51%를 기록해 지난 2017년보다 0.32%포인트 줄었고, 연체율도 0.31%로 2017년 대비 0.03%포인트 줄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부실

채권(NPL) 커버리지비율도 119.4%로 개선돼 향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건전성 개선 노력으로 우량자산 비율을 역대 최고수준인 84.4%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건전성 지표는 안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분기 중 명예퇴직 실시 및 보수적 총당금 적립 등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손태승 은행장 취임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자산관리, 글로벌부문 및 CTB 등으로의 수익원 확대전략과 철저한 자산건전성 관리 노력의 결과"라며 "올해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는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금융지주 출범에 따라 비은행부문 사업포트폴리오를 적극 확대해 2~3년 내 1등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 원년을 맞이한 우리은행은 금융종가로서의 부활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대출과 시민금융대출을 확대하고, 혁신성장 기업을 발굴해 생산적 금융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홍명영 수습기자 hong93@metroseoul.co.kr

KEB하나銀, 독립운동가 후손에 4억 후원 “P2P금융 법제화 쟁점... 정체성 찾아야”

'3·1운동 100주년 기념' 캠페인



KEB하나은행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가슴 벅찬 그 이름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함양주 KEB하나은행장은 11일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對)국민 캠페인은 ▲숭고한 희생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국민입니다 등 세 가지 주제로 11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두 달 간 진행된다.

우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4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손님이 직접 참여해 적립된 금액으로 마련된다. 캠페인 기간 중 KEB하나은행의 예·적금 및 모바일 앱 1Q Bank에 신규 가입하면 가입좌수 당 1천원씩, 대국민 캠페인 SNS 게시물에 '좋아요' 클릭을 하면 클릭수 당 500원씩이 적립된다.

이를 통해 마련한 4억원을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 및 교육지원, 독립유적지 탐방 및 생존 애국지사 찾기 사업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좋은 취지의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했다. /김문호 기자 kmh@

최종구 금융위원장 P2P금융 1분기 입법안료 목표

"P2P(개인 간)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P2P금융 법제화가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퓨처마킹(Future Marking)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P2P금융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며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고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금융의 업무 방식을 기존 법체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각계각층의 P2P금융의 법제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김성준 렌딧대표(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 운영위원장)는 "사모펀드 투자 범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대와 금융회사 투자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면서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의 경우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P2P금융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부동산 대출 실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자본투자(PI)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한국P2P금융협회장)는 "P2P금융은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강점에도 투자금(대출금)이 다 모이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려 모든 차입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기자본투자 비중을 확대해 대출자금이 유동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도 "P2P대출을 신청한 개인차입자의 경우 빠르게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31% 이상을 차지한다"며 "자기자본투자 비중을 30%로만 확대해도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경은 금융감독원 핀테크 지원실장은 "자기자본투자와 관련해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허용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 "다만 투자 비율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그에 맞는 소비자 피해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여신심사 부분이나, 플랫폼 운영 부분에 대한 감독조정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실패 현상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P2P금융의 경우 특히 부동산 실패가 심해 법제화 시 금융요건 리스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입법안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온라인대출중개업법(민병두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진복의원), 대부업법(박광은의원), 자본시장법(박선숙의원) 등 총 5개다.

/나유리 기자 yul115@

BNK부산은행 '맞춤형 해양금융 지원체계' 구축

BNK부산은행이 해양금융부를 신설하고 '해양금융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해양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내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한 '해양 종합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선박 관련 특수금융 업무, 보증상담·보증신청 권유,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 개발 등 다양한 해양금융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향후 해양금융 전문은행으

로의 도약 및 '해양금융 종합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도 수립했다. 해양금융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내 해양금융 인적자원을 늘리는 한편 국내의 해양금융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선박펀드, 해양 인프라 사업(항만·부두 개발) 참여 등 다양한 해양금융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빈대민 은행장은 "부산은행을 해양금융 전문은행으로 키워, 선박금융 등 해양금융을 강화하고 관련된 지역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안면인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신한은행은 신한솔(SOL)에 안면인증 솔루션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계좌 미보유 고객은 영상통화를 통해서만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영상통화는 상담사 근무시간 외에는 처리를 할 수 없고, 영상통화 집중

시에는 고객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안면인증 서비스는 신분증 촬영과 얼굴 영상촬영만으로 상담원과의 영상통화 없이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신속한 업무처리로 편리성이 향상돼 진



정한 비대면 बैं킹을 체험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l@